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역사적로정

민족대단결 5대방침을 제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바라는 겨레의 지향과 녀민이 날로 높아가고있던 주체 87(1998)년 4월 18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역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의 50돛기념 중앙

연구토론회에 서한 《은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를 보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서한에서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독창적이고 민족애에 넘친

숭고한 민족대단결사상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전생애를 바치시어 훌륭히 구현하여오신데 대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민족대단결사상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

여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와 재산의 유무, 사회적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계급, 계층이 민족공동의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하나로 굳게 단합할데 대한 사상이라는데 대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남기신 민족단합의 위대한 사상과 업적, 풍부한 경험과 전통을 고수하고 드림없이 계승하여 우리 대에 조국을 통일할데 대하여 천명하시었다.

대한 사상,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외세와 결합한 민족반역자들과 반통일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할데 대한 사상 등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데서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5대방침을 제시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혀 주신 민족대단결5대방침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민족대단결사상을 심화발전시키고 민족대단결실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준 민족대단결원장, 조국통일대강이다.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의 위대한 앞길을 밝혀주는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받아안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위대한 장군님을 민족의 태양, 조국통일의 구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통일애국성업에 힘차게 떨쳐나설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었다.

본사기자 홍범식



역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가 모란봉극장에서 진행되었다. (1948년)

통일운동사에 새겨진 숭고한 화폭들 녀류동포기자의 감복

누구나 한없이 소탈하고 인자하신 품성을 지니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만나 뵈오면 그의 절세위인상에 저도 모르게 매혹되곤 하였다.

그러한 사람들중에는 녀류기자인 문명자재미동포도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손을 꼭 부여잡고 그가 찍은 기념사진에는 장군님께 스스럼없이 끌려 매혹된 그의 심금이 그대로 담겨있다. 26살부터 문필활동을 벌려온 문명자동포는 명망이 높은 언론인의 한사람이었다.

자기가 체험하지 않고 남의 말만 듣고 글을 쓰는것을 질색한 그는 자본주의사회의 온갖 부조리한 사회악을 까밝히고 특히 권력자들의 추악한 면모를 라메하고 규탄하는것을 문필가의 본령으로 여겨왔다.

권력을 휘둘러 국민을 짓밟고 우롱하며 불행을 들춰우는 악한자들에게 대한 중요 심이 항상 그의 가슴에 배

여있었고 부패한 권력자라면 그가 누구이든 예리한 붓으로 발가놓곤 하였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을 다녀오았고 만나본 지도자들도 적지 않았지만 그의 예리함과 투시력으로 볼 때 진정한 인민을 위한 지도자, 민족의 참다운 령수는 세상 어디서도 찾아볼수 없었다. 이러한 그가 진정으로 매혹되어 끝없는 존경과 숭배의 마음을 안고 다른 령도자가 계셨으니 바로 그이름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주체89(2000)년 6월 어느날이었다. 평양을 방문한 문명자동포를 따듯이 맞아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 너사를 만나주겠다고 한 《빛》을 이렇게 갖고 시간을 냈다고 하시면서 긴장해있는 그의 마음을 대변에 풀어주시었다.

너무도 겸허하시고 인자하신 그 인품에 끌리어 무렵없이 알고싶은 문제들에 대하여 질문을 올리던 그는 인민을 제일로 위하시는 인

민의 령도자의 위인상에 감복을 금치 못해하였다. 더우기 나라의 통일은 외세가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 손을 잡고 이룩해야 한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들으며 문명자동포는 민족을 최우선시하시고 겨레를 열렬히 사랑하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민족애에 머리를 숙이였다. 가식없는 소박성과 진실, 한없이 넓은 도량, 인민과 민족을 우선시하시는 그런 령도자를 그는 세상 어느곳에서도 만나볼수 없었고 체험해볼수도 없었다. 절세위인의 인품과 인덕에 매혹되어 그는 기념사진을 찍을 때 장군님과 떨어지지 않으려는듯 그의 손을 꼭 부여잡았다.

문명자동포만이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상에 매혹된 모든 동포들이 그를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따르며 통일애국의 길에 한생을 바치였다.

본사기자 리경월

조국통일문제의 성격은 무엇인가.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가 우리 민족의 자결권에 속하는 민족내부문제이며 이 땅의 주인인 조선인민 자신이 해결해야 할 내정문제라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그 어느 외부세력도 간섭할수 없는 조선민족자신의 문제이다.

조선반도의 분렬력사는 한때 분렬되였던 다른 나라들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우리 나라의 지난날 다른 나라를 침략한 나라도 아니며 전제국도 아니다. 조선은 근 반세기동안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하에 있

남조선에서 반미자주, 반전평화, 반보수투쟁열기가 더욱 고조되고있다고 한다.

1월에만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를 비롯한 통일운동단체들과 《자주시보》, 《통일뉴스》를 비롯한 진보언론들은 미국의 대조선전대시정책을 단죄하는 성명, 논평을 발표하여 북남관계발전에 차단을 내리고 평화와 통일의 꿈을 짓밟고있는 미국의 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에 각계층이 적극 떨쳐나설것을 열렬히 호소하였다.

다른 각계층 단체들도 서울주재 미국대사관과 평택, 룡산, 오산 등지의 미군기

지앞에서 기자회견과 1인시위, 미군풍자공연, 길거리현수막제와 같은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반미반전투쟁을 활발히 벌리고있다고 한다.

우리 민족이 분렬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해방후 외세가 저들의 침략적야망실현을 위해 우리 나라의 절반 땅인 남조선에 틀고앉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나라의 절반땅에서 외세를 내쫓고 통일을 이루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신성한 자주적권리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남조선에서 민족내부문제, 통일문제를 여기저기 들고다니며

중단하라!... 남조선에서 터져나오는 이러한 준렬한 웨침은 침략자, 강점자인 미국을 단죄하는 성도이며 외세없는 자주의 땅, 전쟁위험이 가서진

영원한 평화를 안아오기 위한 남조선인민의 정의의 목소리이다. 한편 개혁과 초불찬원원대, 대학생공동행동 등 진보세력들과 언론들은 동족대결

권개선》 등의 망발을 웨친 《국민의힘》의 《대통령》선거후보 윤석열과 그를 비호두둔하면서 동족대결을 고취하는 《국민의힘》을 규탄배격하는 여러

라셋손가락을 하나로 합치면

주체82(1993)년 3월 재미동포들이 우리 민족은 분렬로 인한 재난과 고통에서 벗어나 통일된 강토에서 행복하게 살수 있다고 하시었다. 그리시면서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이 사상과 제도,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공동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복속시키다면 민족의 대단결은 능히 실현할수 있다고, 크기가 서로 다른 다섯손가락을 하나로 합치면 주먹이 되듯이 정견과 신앙이 다른 사람들도 하나로 굳게 뭉치면 큰 힘을 발휘할수 있다고 하시었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최대의 애국투쟁

주체71(1982)년 9월 공화국창건 34돛을 맞는 날이었다. 그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조국통일문제를 비롯한 교시를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우리 수령님께서 백두의 협산준령을 넘나드시며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신것은 분렬된 조선을 위해서가 아니였으며 수령님께서 백두영에서 등잔불을 드시고 비쳐보신 우리 나라의 지도는 백두산에서 한나산에 이르는 삼천리조선이었지 결코 두 동강이 난 조선이 아니였다고 하시었다.

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우리는 어떤 시련이 앞을 가로막아도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성취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국통일에 대하여 무관심한 사람은 애국의 마음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조선민족으로서의 자격도, 조선에서 살 자격도 상실한 목적이다. 조국통일은 곧 애국이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최대의 애국투쟁이라고 강조하시었다.

본사기자

통일교실

조국통일문제의 성격

한 우리 민족의 투쟁을 대신해줄수 없으며 조국통일문제는 오직 우리 민족이 자기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은 통일문제를 자체로 풀어나갈수 있는 힘을 가지고있다. 북과 남의 온 겨레는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가 우리 민족의 자결권에 속하는 민족내부문제이며 이 땅의 주인인 조선인민 자신이 해결해야 할 내정문제라는것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성스러운 성업에 모든 것을 다하여야 한다.

신기복

형태의 투쟁들을 적극 벌리고있는데 대해 련일 보도하고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들어와 남조선에서 더욱 과감히 벌어지는 반미, 반전, 반보수투쟁은 자주와 평화, 통일을 바라는 민심의 지향과 의지가 얼마나 강렬한가를 여실히 실증해준다.

겨울의 추위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봄이 오는것은 막을수 없는 법칙이다. 자주, 평화,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그 누구도,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수 없다.

백영환

자주와 평화, 통일의 불을 안아오려는 강렬한 의리의 불꽃

《군사훈련강행으로 국민 안전 위협하는 주한미군 규탄한다!》, 《한반도정세 긴장화의 주범은 물러가라!》, 《전쟁위기 고조시키는 한미연합훈련을 영구



통일을 불러

련북애국의 길에서 빛나는 삶 (1)

평양에는 속설처럼사적으로 불려오는 잊지 못할 곳이 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마다 숭엄한 감정에 휩싸여 바라보는 통일전선탑의 비문에는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길에 헌신한 조완구선생의 이름도 뚜렷이 새겨져있다.

조완구선생은 자주통일의 열망으로 가슴 불태우며 애국으로 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한 통일애국인사들중 한사람이다.

조완구선생은 1881년 3월 20일 서울 종로구에서 아버지가 조선봉건왕조의 리조참관을 지낸 가세가 큰 판포가문의 3남중 둘째아들로 태어났다.

그가 출생하여 성장하던 시기는 말그대로 망국의 구름이 날로 짙어가고있던 다사다난한 시기였다.

이런 속에서 선생은 21살의 나이에 서울법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고종황제의 승훈부내부주사로

서 쓰러져가는 봉건왕조의 관직에 올랐다.

1905년 11월,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해 이른바 《보호》라는 미명아래 강도적으로 날조된 《을사5조약》은 당시 24살의 열혈청년이었던 선생의 가슴에 울분과 통탄만이 가득차오르게 하였다.

비분을 참을길 없어 선생은 관복을 벗어던지고 결연히 독립투쟁의 길에 나섰다.

끓어오르는 반일의기속에 선생은 참지에 이런 현서를 남기였다. -가슴에 품은 애국의 씨앗, 한송이 국화꽃으로 피우리라. - 선생은 각종 애국계몽강연에 연사로 나서는 한편 일본경찰의 눈을 피해가며 격문을 뿌리는데 앞장섰다.

자기의 집마저 팔아 독립운동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다나니 집없는 신세에 처하였지만 선생은 독립의 일념을 안고 계몽연단을 떠나지 않았다.

일제의 《한일합병조약》날조후 조선에 대한 야만적인 식민지통치가 더욱 강화되자 선생은 종교를 통한 국권회복운동에 힘을 기울이였다.

그러던 1914년 대종교총본사가 북간도로 옮겨가자 선생은 그곳으로 망명하였다.

대종교가 사람들에게 민족의식, 독립정신을 불리일으키자 일제는 1916년 강제교포를 폐쇄할데 대한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자 교주는 황해도 구월산(당시의 삼삼사에서 자결로써 항거하였다.

이미 《한일합병조약》소식에 너무도 비분강개하여 《나라가 깨지고 임금이 망했는데 죽지 않으면 무엇하랴》고 통탄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처남과 자결



조완구 선생

로써 일제에게 항거하는 교주의 의로운 모습들은 선생으로 하여금 나라의 독립에 일생을 바칠 비장한 각오를 더욱 굳게 하였다.

떠나간 명혼들의 절규를 되새기며 선생은 결심품고 일제를 반대하는 독립의 길을 걷고 또 걸었다.

북간도에서 올라지보스

도크로, 상해로... 이 나라에 선생은 《한족공보》의 주필로, 《한국독립당》의 상무위원, 임시정부의 내부부장, 재무부장으로 지내면서 백범 김구 독립의 길은 결코 탄탄대로가 아니였다. 가문의 기둥으로 바라보던 선생의 외아들마저 잃는 슬픔도 이겨내야만 했다.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그는 웨치다싶이 말했다.

본사기자

